

군사적 행동에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화적 입장을 굳건히 견지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세계 전쟁(global war)을 막아야만 한다. 이것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북반구"가 "남반구"에 선포한 세계 대전이다. 이들 "북반구" 국가들은 그간 전 세계적으로 근본주의와 국가주의의 부흥을 야기하는 세계화를 추진해왔다. "남반구" 민중들은 이러한 세계화가 가져온 영향들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한편으로는 이에 저항해 왔다. 우리는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양심적인 시민들에게 전쟁이 전세계로 번지는 것에 반대하는 연대의 "세계화"로 단결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는 비폭력 철학에 대한 깊은 신념을 굳건히 견지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여성들에게 다시는 전쟁의 세기가 반복되지를 않도록, 21세기 평화 창조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을 호소한다.

바우넷 재팬

팩스 81 3 5337 4088

e-mail : vaww-net-japan@jca.apc.org

www.hri.ca/partners/vawnet

(번역: 정희진)

NION (Not In Our Name) 저항의 맹세

NION

우리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정부의 부당한 일들에 대해 저항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끝없는 전쟁도,
더 이상의 죽음도,
석유와 맞바꾸는 피도,
우리 이름으로는 안됩니다.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
민간인들을 폭격하고
아이들을 살해하고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의 무덤 위에
역사가 흘러가게끔 하는 것,
우리 이름으로는 안됩니다.

우리가 얻기 위해 그토록 싸워왔던
자유를 물어 버리는 것,
우리 이름으로는 안됩니다.

다른 땅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
무기와 자금을 대는 것,

우리 손으로는 안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침묵하게 하는 것,
우리 입으로는 안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국가를
악으로 재단하는 것,
우리 가슴으로는 안됩니다.

우리 의지로는,
우리의 이름으로는 안됩니다.
우리는 저항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었거나,
그들의 종교나 민족 때문에
공격받는 사람들과 연대할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의와 자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과 연대할 것을 맹세합니다.

세계가 지금과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으며,
바로 우리가 그 세계를 실현시킬 것을 맹세합니다.

출처 : www.notinourname.net
(번역 : WAW번역팀)

양심의 성명서 : 우리 이름으로는 안 된다.

A Statement of Conscience : Not in Our Name

NION

미국 정부가 제한 없는 전쟁을 선언하고 새로운 억압 정책을 세우던 그 때에, 미국 국민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고 역사에 남길 수는 없습니다.

이 성명서의 서명자들은 2001년 9.11 이후 나타난 이러한 정치적 방향과 전세계 인들에게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정책들에 저항할 것을 미국 국민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각 국민과 국가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와 열강의 군사적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에 의해 고발된 사람들 역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의문, 비판 그리고 다른 의견들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권리와 가치들은 언제나 시험받아야 하고, 투쟁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정부가 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정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부시 행정부가 일으킨 전쟁과 억압에 저항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음을 물론, 비도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사람들과 연대할 것을 선택합니다.

2001년 9월 11일의 끔찍한 사건은 우리에게 역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죄 없는 죽음을 애도하고 그 지독한 대량살상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그다드, 파나마, 그리고 한 세대 이전의 베트남에서 벌여졌던 대량살상을 떠



우리
이름으로는
안된다

올릴 때 그러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지?”라는 수백만 미국인들의 고뇌 어린 의문에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최고지도자가 복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지금, 이 추모는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 미디어를 통해서 선과 악의 대결구도라는 극히 단순한 대본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질문하는 것은 반역행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논쟁이 자리잡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도덕적 물음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대답은 외국과의 전쟁이며 자국에서의 억압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부시행정부는 의회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정으로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했을 뿐 아니라, 자신과 연맹국의 권력을 남용하고 군사력을 언제 어디에 서라도 쏠아 부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 잔인한 반격은 필리핀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이어져 왔으며, 그곳의 이스라엘 탱크와 불도저는 죽음과 파괴의 끔찍한 후유증을 남겨왔습니다. 이 정부는 이제 9.11 테러의 악몽과 아무 관련도 없는 나라인 이라크에 대한 전쟁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게릴라 부대, 암살자 그리고 폭탄을 어디라도 보낼 수 있는 백지수표를 가질 수 있다면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으로, 미국정부는 사람들을 두 종류의 계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소한 보장된 미국법체계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과,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은 사람의 계급입니다. 정부는 천 명이 넘는 이민자들을 체포했고 비밀리에 무기한으로 구금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추방당했고 다른 수백 명은 오늘도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일본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악명 높은 집단수용소의 감사를 느끼게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이민 절차에서 특정 국적을 배제하는 불평등한 대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정부는 우리 사회에 억압의 장막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라”고 경고합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예술가,

지식인 그리고 교수들의 의견은 왜곡되고 공격받고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미국 애국자 법안’은 국가적 차원의 몇몇 비슷한 조치들과 더불어, 경찰에게 광범위하게 새로운 조사권과 압류권을 주었고, 이는 비밀 절차로 감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행정부는 정부의 다른 부서들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탈해 왔습니다. 느슨한 증거규정을 가지고, 일반 법정에 항소권이 없는 군사 법정이 행정부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그 집단은 ‘테러리스트’라고 선언됩니다.

이 땅의 고위공직자들이 한 세대를 지속시킬 전쟁, 그리고 새로운 지배 질서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향한 공공연한 새 제국주의 정책, 우리의 권리를 축소시킬 날조되고 꾸며진 공포의 지배정책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간의 사건 안에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저항해야 할 죽음의 궤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순간에서 사람들은 저항하기에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려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선언했습니다. “우리 편에 서거나 우리 반대편에 서거나 둘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미국인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문을 던질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에 대한 공허한 약속의 대가로 우리의 양심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이 전쟁의 공범이 되기를 거부하며, 그들이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복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언급을 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 정책으로 고통 받는 세계의 사람들과 협력을 확장해 나갈 것이며,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연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성명서에 서명한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 도전에 함께 힘을 합쳐 일어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현재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문과 항의에 박수를 보내

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과물을 멈추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고 말하며 요르단령과 가자지구에서 군복무를 거부한 한 이스라엘 퇴역군인에게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역사 안에서 보여진 저항과 양심의 수많은 사례들로부터 영감을 얻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지하철도조직으로 노예를 탈출시키며 노예제도와 싸운 사람들, 명령을 어기고 징병을 거부하며 저항자들과 연대하여 베트남 전쟁에 도전하였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침묵과 행동하지 않음을 보며 전세계의 시민들이 절망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의 서약을 세계가 들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과 억압에 저항할 것이며, 이를 멈추기 위해 다른 이들과 연대하여 모든 가능한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번역: WAW번역팀)

9.11 유가족이 백악관에 보내는 편지

부시 대통령께,

우리 모두는 2001년 9월 11일 적어도 한 명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이라크에서의 전쟁으로 이끌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보다 테러리즘의 종언을 더욱 갈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이라크정권으로부터 야기될 위협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인, 다자간의, 그리고 비폭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분별한 폭력으로부터 겪었던 우리의 고통과 손실을 지구상 어느 지역의 가족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9.11 유가족인 우리와 같이 수천 명의 무고한 이라크 가족들에게 고통을 야기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또한 우리의 군인들을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할 것이며, 더 많은 미국 가족들의 죽음과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께 이라크에서 전쟁없이 상황을 해결할 것을 탄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군인과 이라크 시민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을 추모와 반성의 시간이 아닌, 9월 11일의 사건과 관계없는 국가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한 대통령의 행동에 무척 실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라크에서의 전쟁이 9월 11일 공격의 책임자들을 체포하고 정의의 심판에 맡기는 일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전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중동지역을 동요시키고 다른 국가의 셀 수 없는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인명 희생을 가져올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

리는 더 많은 살상이 단지 테러리즘의 불씨를 더욱 자극할 뿐이며 우리를 해칠 테러리즘 집단들을 더욱 쉽게 강화시킨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쟁이 아프가니스탄에 안정과 민주주의를 부르려는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할 것을 걱정합니다. 우리 단체(September Eleventh Families for Peaceful Tomorrows)는 올해 아프가니스탄에 두 개의 대표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우리 단체의 구성원들은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버릴 것을 걱정하는 수십 명의 평범한 아프가니스탄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돕는 책임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상태의 아프가니스탄이 우리 미국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통령이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과 필요할 경우 단독행위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밀접하게 연결되고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위험한 선택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끼리 자국의 분쟁을 다룸에 있어 군사적 행위를 최후의 수단이나 최초의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을 묵인하는 세계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개개인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분노와 증오가 아닌, 어떤 가족도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을 세계를 만드는 데 대한 진실한 소망으로 응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 우리와 동참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예롭게 할 평화로운 미래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지구상 어디에서든 9월 11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걱정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02년 9월,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9. 11 유가족 일동

출처: www.peacefultomorrow.org

(번역: WAW번역팀)

이라크의 여성들에게

이라크의 여성들은 조직화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라크의 재건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소식지는 이라크의 전쟁이 끝나감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이제 미-영 연합군의 폭격으로 후세인 독재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을 차별하고 박해했던 정부가 사라진 것에 대해 기쁨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무엇이 오느냐입니다. 여성인권운동가인 우리로서는, 전후 이라크의 여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엔에 의해 통치되는 분쟁 후 지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여성단체로서, 우리는 이라크의 여성들에게 들려 줄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소보 여성은 1990년대 초반 조직화를 시작하여, 밀로세비치의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코소보의 알바니아 주민 박해에 저항하는 지역 정부와 함께 일했습니다. 구유고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지역 여성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었고,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여성과 난민들을 도왔습니다. 코소보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성인권운동가들은 난민이 되었지만, 여성과 함께 여성을 위해 일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의 난민 캠프에서 우리는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우리는 코소보에 유엔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엔은 우리에게 있어 여성인권을 향상시키는 주요 문건들을 통과시키고 발전시킨 국제기구이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중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소보로 돌아왔을 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코소보의 유엔 대표부(UNMIK)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소보 여성의 필요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있어 국제기구와 함께 일하기를 원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 스스로의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관해 우리의



우리
이름으로는
인된다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의 국제기구 직원들은 코소보가 극도로 가부장적 사회이며, 여성운동이 결코 성장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코소보에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직원을 찾고, 사무실을 구하고, 회의를 잡고, 번역을 제공하는 등의 그들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데 관심이 있거나, 우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시도했던 스스로의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우리 삶의 현실에 맞추어 그 계획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삶을 추스리는 여성과 그 가족들을 돕는 데 모든 힘을 쏟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코소보의 여성들은 도움을 기다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도울 수 있으며, 과거에 그러해왔듯이 스스로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유엔에 알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유엔 관리들과 만났고, 편지를 썼으며, 회의에 참석해서 생각과 지식과 전문성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기부자들과 대화했고, 우리를 여성인권 향상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국제기구들과 연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지난 4년간 코소보의 여성단체들이 직면해 온 매우 다층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했고, 효과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했고,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의 여성들에게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라크의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국제 언론이 이라크의 여성들을 어떻게 이미지화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검은 베일을 쓴 여성들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라크의 여성들은 마치 이라크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언론에서 어떠한 목소리도 갖지 못했습니다.

전쟁 시에 코소보의 여성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화되었습니다. 국제 언론매체들은 텔레비전 상에서 지식인 여성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강인하고 지적인, 조직된 여성들이 이곳 코소보에서,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 있어 왔던 것처럼, 이라크에도 그러한 여성들이 존재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코소보 여성들은 전후 이라크의 미군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엔이 이라크에서 민간 정부를 구성한다면, 이제 그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고, 현장의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유엔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2003년 4월

이고 로고바

코소보 여성 네트워크

출처 : 코소보여성네트워크 www.womensnetwork.org

(번역: WAW번역팀)

6

절망의 거리에서 희망의 길을 찾아서 : WAW 소개와 활동 정리

- 147. WAW의 활동(편집팀)
- 158. [성명]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 중지를 요구한다+답글들
- 168. [성명]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170. [성명] 이라크 전쟁 반대! 다시, 반전 시위를 열며
- 172. [성명] 인권 없는 반여성적 반전운동 반대한다
- 174. [성명] 미국은 한반도 전쟁위험을 중단하라
- 178.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과 '미군장갑차여중생살인사건범대위'에 보내는 공개서한
- 181. 고이즈미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184.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187.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192.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WAW의 활동

WAW 편집팀

WAW의 출발과 문제의식

2001년 9월 20일 '평화를 원하는 여성주의자들의 모임'을 통해 발족한 '전쟁을 반대하는여성연대WAW(Women Against War)'는,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모든 여성과 장애인,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 어린이,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 및 단체들의 모임이다. WAW는 전쟁과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하나는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WAW의 활동 방향

WAW는 여성단체와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 여성언론,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새로운 여성 연대체'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으며,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주변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WAW는 현재 사이트(www.kwaw.org)를 통해 개인 회원들이 자원하여 번역, 언론홍보, 연구, 출판 등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개인 회원 및 연대 단체들이 함께 집회, 서명운동, 학술 토론회 및 사이트 운영을 통해 여성 및 사회적 소수자들의 전쟁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가시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WAW의 활동내용

2001년 : '1010 건널목 시위' 와 '아프간여성영상제'

WAW는 첫 활동으로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로 반전 목소리를 내고자 '건널목 시위'를 열었다. 서울에서는 10월 10일 신촌 로타리에서 WAW의 15개 단체와 개인들이 모여서, 페미니스트 가수 안혜경의 공연, 우먼역시엔탈과 홍아의 퍼포먼스가 포함된 건널목시위를 열었다. 부산에서는 서면 밀리오레 앞에서 WAW와 함께 하는 세 단위(부산경남여성이반인권운동모임 안전지대, 부산대 여성주의웹진 월장, 부산대 교지편집위원회)가 모여서 건널목 시위를 진행했다. 이 건널목 시위는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집회 형식을 제안했다는 의미가 있었다.

2001년 11월 16-17일에는 이화여대 가정관 318호에서 '아프간 여성 영상제: 전쟁, 폭력, 여성'을 열었다. 영상물 상영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 가수 안혜경, 지현그리고 WAW의 공연과 토론회, 자료집 배포가 함께 이루어졌다. 영상물을 통해서 아프간 여성의 삶과 투쟁, 반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페미니스트 가수들은 공연을 통해 자신의 반전 메시지를 알렸으며,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여성과 십대의 위치에서 보는 반전은 어떤 의미인가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두 가지 사업 후에 12월 9일에는 회원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자율적인 개인과 단체의 네트워크로서의 WAW가 앞으로 의사소통과 결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자발적인 네트워크에 결합하는 이들이 어떻게 책임과 역할을 나누고 모임을 지속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간 WAW가 주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이었고, 기동성을 주며, 평등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해주었던 요소였지만 또한 이런 형태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숙제였다.

총회를 통해서 만든 대안은 의사 결정권한을 갖는 활동회원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WAW에 관심이 있는 이는 각자 상황에 맞게 활동회원, 온라인회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활동회원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활동의사를 밝힌 회원으로서 일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활동회원이 갖는 권리는 의사결정권, 의사결정권이며, 정기모임 참석과 일정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또한 WAW의 입장을 풍부히 만들고 WAW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활발히 나누고 이후 토론회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을 심화시켜 가자는 결정을 하였다.

2002년 상반기 : WAW의 입장과 방향설정을 위한 토론회, '3.8 여성 무지개 시위', 테러방지법 반대, 전투기구매 반대를 위한 '함께 쓰는 성명서' 사업.

2002년 1월 모임에서는 가시적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일상의 '전쟁'에 반대해 나가는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1월 24일 예정으로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에서 WAW와 함께 했던 여러 소수자단체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가 기획되었다.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WAW)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2. 1. 24 (목) 오후 2시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1층 회의실

1. 토론회를 제안하며

안녕하세요? WAW 회원 여러분!

지난 9.11 테러와 부시 행정부의 보복전쟁 이후 분노와 상실감, 허무함을 딛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전쟁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WAW 활동이 이제 넉 달이 되어 갑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WAW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1010건널목 시위, 아프간 여성영상제 등을 통해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질망 속에서 투쟁하는 아프간 여성들, 보스니아 내전 당시 강간의 고통 속에서도 국제법정에서 진실을 알려나가는 여성들, 전지구적으로 아프간 여성들을 지지하는 여성들, 그리고 빗속의 시위현장에서, 미나의 시를 통해, 십대 고등학생들의 목소리에서, 춘천에서 두 딸을 키우는 주부의 회원가입 신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WAW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WAW의 활동은 그동안 국가 대 국가로 나뉘어졌던 전쟁의 구도에 의심을 하고, 균열을 내는 작업이었습니다. WAW는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기존의 전쟁에 "누가 전쟁의 피해자이고, 누가 전쟁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가?"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이 때 모든 전쟁은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전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시화된 전쟁이 더 이상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게 되자 WAW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분들이 WAW의 이후 활동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지속적인 전쟁은 미국에 적대적인 북한, 이라크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속적인 전쟁 이슈를 문제화할 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일상의 폭력을 문제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쟁이고,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폭력에도 반대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곧 일상적인 불평등과 약자에 대한 폭력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지속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와 나찌의 동성애자 집단학살의 역사는 일상적인 성매매와 성폭력이 용인되는 사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과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 빠른 속도, 정상인의 몸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은 일상적인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5일 오프모임에서는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제 WAW는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전쟁을 문제화할 뿐 아니라 일상적인 폭력과 억압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쟁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WAW와 함께 하는 모든 단체, 개인들과 함께 할 때만이 실질적인 참여와 연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WAW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지속적인 전쟁을 문제화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전쟁의 개념을 일상의 폭력과 연관지으면서 확장하고자 할 때, WAW는 어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까요. 모든 연대단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개인회원으로서 이를 고민하고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 토론회에 오실 때는,

미국의 보복전쟁 이후의 움직임,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및 전쟁의 개념을 일상의 폭력과 연관 짓는 발제 후, WAW와 함께 하는 모든 단체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WAW의 활동방향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니(단체별 5분 정도), 참여하는 모든 단체에서는 A4 1매 이상의 발표문을 준비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토론회 전날까지 발표문을 kwaw@freechal.com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 1. 11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드림

수신 : 내가 꿈꾸는 도시 'LBcity', 달나라팔세포, 델타페미니스트, 부산대 여성주의 웹진 '월장', 소녀들의 페미니즘, 여성문화기획, 불턱, 여성과 경제연구회, 여성신문,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 연세대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대학원 학생회, 이화여대 여성학과 '평화를 위한 여성주의자들의 모임',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장애여성공감, 한국어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WAW' 인터넷 카페 회원들(가나다 순)

이 토론회에서는 일상적 폭력과 전쟁 폭력과의 연관성이 논의되고, 반전 행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RAWA의 목소리가 소중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한편으로는,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여성간의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하게 말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으며, 또한 부시가 지속적인 전쟁 움직임을 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전투기 구매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과 관련된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월에는 4조 3천억원이 소요되는 한국군의 전투기구매사업이 진행되던 때였는데, WAW는 이를 반대하기 위해 전쟁준비와 군비증강이 여성과 소수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왜 우리의 삶을 후퇴시키는지 발언하고자 '4조 3천억원의 상상: 함께 쓰는 성명서'를 기획하였다. 전투기에 전문학적인 액수를 투입하는 것보다 그 액수를 차별을 개선하고 소수자들의 복지에 쓸 때 진정한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발언하였다.

'색다른 어울림 3.8 여성 무지개 시위'는 2002년도의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로, 매년 여성계에서 대규모 공동 행사를 치러왔지만 WAW 결성 이후 처음 맞는 여성의 날 행사인 만큼, 여성과 장애인, 성적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규모 단체들과 함께 "무지개 시위"를 공동주최하게 되었다. 제목을 "무지개 시위"로 정한 것은 이 행사에 참여하는 각 단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제한 없이 드러냄으로써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아름답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월드컵의 준비와 함께 필요성이 제기된 테러방지법안이 왜 인권침해적이고 약자들의 목소리를 침묵하게 하는지 발언하였다.

*무지개 시위 프로그램

시간 - 3월 9일 1시-2시 본행사, 2시부터 건널목 시위

장소 - 인사동 서울은행앞 인도

1. 사회자 여는말
2. 장애여성공감의 발언

3. 평화결림돌상 시상 및 테러방지법안 반대퍼포먼스
4. 대학단위 발언
5. 끼리끼리의 우리 사회의 차별과 폭력을 태우는 의식행사
6. 공동선언서 낭독
7. 사회자 정리발언
8. 교차로시위

참여단체: 전쟁반대여성연대(WAW),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장애여성공감, 두레방, 3.8기획단, 여성문화기획 불탁, 이화여성위원회,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이화레즈비언인 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교수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니아까, 버디친구닷컴, 엘비시티, 명지대학교총여학생회,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

'무지개 시위' 이후에는 활동회원과 일반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팀활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전쟁과 여성' 팀, '인권과 평화' 팀으로 나누어 전쟁에 대한 기존의 WAW의 입장을 비롯해서 폭력과 군축, 평화에 대해서 세미나와 발표, 논쟁, 강좌 등을 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 시기에 군축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면서 북한의 군축,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군축문제나 여성인권의 문제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연해있고 정보도 제한되어 있어서 말하기 어렵지만, 전 사회가 군사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권 차원의 비판이 필요하고, 남한의 군축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으며, 남한사람들이 북한에 계속 진출하는 과정에서 여성인권에 대해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이었던 것이다. 복잡한 북한문제에 관해서 내부에서도 토론을 해가며, 탈북자모임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 우리들의 문제의식을 만들어가고, 북한여성에 관해 연구하는 사람과 탈북자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인권과 평화' 팀에서 처음 준비한 강좌는 군사전문가 김종대님의 'F-15K를 둘러싼 담론들'이었다.

2002년 하반기 : WAW새로운 결성, 북한인권에 대한 강좌, '소수자의 시선으로 북한만나기', 10.8 국제여성평화행동

<들어가는 글> 북한 인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한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하는 동시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문제삼아 왔으며, 대북 포용정책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한국의 보수언론들 역시 북한 인권의 참상을 고발하는 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 온 진보적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만큼 침묵을 지켜 왔습니다. 몇몇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그리고 아직 북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은 상황에서 무어라 성급하게 재단할 수 없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말들 안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묻혀 왔습니다.

6월 7일 활동회원 오프모임을 통해 WAW는 기존의 틀을 해체하고 새로운 단체로 태어나기로 결정하였는데 WAW의 회원은 이때 500명을 넘어섰지만 전쟁의 위협을 피부로 느끼던 때와 달리 활동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 WAW는 '자발적'인 참여조직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활동이 미미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모임을 이끌어가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WAW는 기존의 커뮤니티를 해체하고, 소수라 하더라도 앞으로의 WAW- 여성과 소수자의 관점으로 평화운동을 하는 단체 -의 방향과 활동에 기대를 걸고 함께 하고자 하는 회원들과 새롭게 출발하기로 하였다. 새로 출발하는 WAW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비납부(월 한끼 밥값 이상 자동이체)를 함으로써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또 여성과 소수자의 관점을 견지하며 전쟁과 폭력에 대해 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을 벌여나가며, 그것의 하나로 '북한 인권' '북한의 여성'에 대한 조명을 해나가기로 했다.

시간 : 2002년 7월 5일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우리는 북한 인권에 대한 우리의 문제제기가 이제껏 이어져 왔던 반공주의와 북한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의 연장선상에 놓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더욱이 현재의 국제정세 안에서 미국이 MD 체제 확산과 동아시아 패권 확보를 위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이 시점에, 대북 강경책에 힘을 실어 주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단호히 경계합니다. 군사주의가 사회적 소수자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인권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WAW는 북한의 인권 상황

이 북한의 군사주의와 가지는 연관성에 대해 주목하여, 남북한 상호군축을 통한 평화만들기를 추구해갈 것입니다.

7월 5일에는 두 번째 강좌로 박경서님의 <북한인권 어떻게 접근할까> 가 열렸다.

강좌 후에는 WAW회원들의 '북한인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어 앞으로 WAW가 북한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가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논의하였다. 그것을 통해 북한의 빈곤상황과 인권 현실을 알리되 구체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며, 보수진영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북한에 대해 침묵하는 진보진영을 비판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본적인 관점은 북한 주민 스스로가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무제한적인 지원을 하고, 북한정권에는 개방을 요구해가자는 것이었다.

또한 '소수자의 시선에서 북한 만나기' 가 기획되었다.

· 소수자의 시선으로 북한 만나기 ·

우리는 대체로 북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합니다. 북한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론이 가끔 북한 난민들의 어려운 생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서해교전 등과 같은 사건을 다루며 요란하게 통일이나 평화나 떠들어댈 때에나 한 번 지나가듯 생각해볼 뿐입니다. 그리고는 북한인권이나 북한 관련 문제를 떠올릴 때면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막막함에 또 잊고 삽니다.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배자적인 관점에서만 북한을 바라보았기에 '북한' 하면 정치적 문제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고 '정치는 골치 아프다'는 인식 때문에 북한에 대해 애써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WAW)는 우리의 시선을 이제 지배층의 정치 문제에서 피지배층의 일상 생활로 돌려볼 것을 제안합니다. 김정일 정권이 어떻게 저떨고가 아니라 북한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가져왔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힐벗고 굴주리고 못 사는' 북한사람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적화통일 약육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려는 전쟁광들'이라는 편견도 내려놓고 '김정일 정권' 이니 사회주의 체제'니 하는 정치적 관점도 접어두고 저 쪽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농사는 어떤 방법으로 짓고 있고 공장 일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산림설계원은 무슨 일을 하고 광산에서 연구사들이 하는 실험은 무엇인지, 여자군인과 남자군인은 각각 어떻게 군복무를 하고 시인은 어떤 글을 쓰며 가정주부들은 남한의 주부들과 어떻게 다른지, 선생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는지...

우리는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며 언론에서 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북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북한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풀리지 않는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떤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편견을 접어두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WAW와 함께 해주세요. 프로그램 진행은 국내 거주 북한주민들로부터 북한에서의 직업과 관련된 일상생활 이야기를 들은 뒤 참석자 여러분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질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8월 30일 시인, 가정주부
9월 06일 중등학교 교사
9월 13일 군인여성
9월 27일 고등중학교 학생
10월 04일 식료공장기사
10월 11일 산림설계원, 광산실험실 연구사
10월 25일 주석부 지도원
11월 01일 농장원
11월 08일 배우로 활동한 여성

때 : 금요일 오후 7시 곳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포스코관 351호 비: 5000원(회원 3000원)

11월 29일 <소수자의 시선으로 본 북한의 인권> 심포지엄

10월 8일에는 미국의 아프간 침공 1주년을 맞아,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와 전세계 평화단체들과 연대하여, 여성과 평화의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다른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성조기 훼손'의 운동 방식에 대해 고민하였다.

12월 6일에 열린 '소수자의 시선으로 북한을 본다는 것은? : 새로운 물음을 던지

며' 토론회는 소수자의 시선으로 북한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여성주의 시선으로 북한을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평화단체로서 WAW가 북한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방식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연구와 출판을 준비하는 틈을 꾸리게 되었다.

2003년 상반기 : 이라크 전쟁 반대, 다름으로많은여성연대 결성, 인권단체와의 연대

아프간 전쟁 이후 부시의 이라크 침공이 다시 준비되자 한국사회에는 반전 담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2002년에 일어난 '미군장갑차 사건' 이후 이어진 '반미'는 '반전=반미'의 등식을 만들었고 전쟁의 명분을 말하게 하였지만, 전쟁은 여전히 국가간의 대립으로 이해되었고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WAW의 시위는 폭격으로 희생된 이라크 여성과 어린이를 추모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3월 8일에는 장애여성공감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와 WAW가 주축이 된 다름으로많은여성연대가 주최한 '색다른 어울림! 3.8 여성무지개시위 2003'이 열렸다. 이것을 통해 소수자단체의 활동 내용과 방식을 풍부히 하고 '비주류 여성들'의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는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상반기동안 여러 반전 담론 중에서 WAW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대학내 여성주의자들과 연대해서 반전 집회와 강연회를 열고 거대한 반전집회 안에서 배제되는 소수자의 입장을 주장하였다. 또한 거대 집회를 주도했던 '여중생 범대위' 등에 고 윤금이씨의 주검사진 사용과 'Fucking USA'라는 노래사용에 대해 항의하였다.

또한 이라크전과 한국군의 파병결정, 북한전쟁위기 등을 보며 전쟁의 이야기가 여전히 국가간 이해와 명분 등의 논의로 한정되어있다는 판단에서 전쟁의 '선택'을 내리고 정책을 결정한다고 여겨지는 노무현 대통령, 부시 미 대통령, 고이즈미 일본 총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생각하는 전쟁과 그 피해, 반전과 평화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고 공개적으로 알렸다.



[성명] 4조 3천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 중지를 요구하며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전쟁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장 최첨단의 무기들을 보유한 미국은 소수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나라의 중심부를 공격당했다. 그리고 전쟁은 일어났다. 지구상의 가장 부유한, 가장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수없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무력의 사용도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부시 대통령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았다. 이러한 그의 선포는 전 세계에 대한 선전 포고와 다를 바 없으며, 그의 '얼굴 없는 전쟁'이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처럼 강한 '전쟁에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미국식의 보복 전쟁, '테러와의 전쟁'이 허용될 때,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군비를 증강하고 전쟁을 준비한다. 그리하여 전 세계는 '전쟁을 준비하는 사회'가 된다. 군비의 증강은 사회복지의 축소를 가져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결과 사회적 불안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테러는 이러한 사회 불안 속에서 싹트게 된다. 그리고 전쟁을 부른다. 이것은 오래된 역사가 아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나라는 매해 '평화'와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거의 1/6인 17조원이 넘는 돈을 군사비로 사용해 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조 3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은 이러한 군비 증강 움직임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로서는 얼마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천문학적 액수인 4조 3천억 원. 4조 3천억 원은 2000년도 우리 나라 전체 45만여 공무원의 1년간 인건비의 1/3에 달하며, 2001년도 우리 나라 실업대책 예산 총액의 거의 2배에 가까우며, 2002년도 노동부 총 예산의 7배가 넘는 액수이고, 2001년도 우리 나라 전체 교육비의 1/6에 달한다.

4조 3천억 원 어치의 전투기를 팔기 위해 프랑스의 군수업체는 우리 나라의 주요 시사주간지에 시리즈로 광고를 내고 있으며, 전투기 수주를 위해 미국 의회의 방한단이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탐색하러 찾아오고, 이어서 방문하는 부시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미국 보잉사의 F15 전투기를 구입하도록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 군수업체의 어느 전투기종이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하기 이전에 국민들에게 지금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이 무기 구매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밝힐 의무가 있다. 실업자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밥을 굶고,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차별에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보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불평등과 가난의 치유보다 '무기 구매'가 더 시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힐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차세대 전투기 구매 사업 계획은 중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의 세금 4조 3천억 원으로, 팔리지 않는 미국의 전투기를 사는 것이 15만이 넘는 결식 아동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인지, 100만이 넘는 실업자들의 일자리 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수백만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확보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일인지, 돌봐야 할 아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폭력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수정하는 일보다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인권과 평등,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최선의 안보라는 믿음으로, '4조 3천억 원의 상상'을 펼치고자 한다. 이 '상상'을 통해 우리는 4조 3천억 원이 죽음의 무기가 아니라 생명의 자원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보여주게 될 것이다.

2002. 2. 4.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Women Against War)

[답글] 4조 3천억원의 상상

이 글은 함께 쓰는 성명서를 통해 모아진 글입니다.

설명글 "성명서 함께 쓰는 방법"

4조 3천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함께 쓰는 성명서'에 참여합니다. 성명서 뒷 부분에 자신의 의견을 적어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전달해서 계속 덧붙여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진 성명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 미국정부와 의회, 유엔 등 국제기구, 그리고 해외 평화단체 등에 전달할 것입니다.

이메일을 이용할 경우 :

4조 3천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가지씩 추가하여 글 뒤에 붙여주시고 이름과 이메일을 적은 후 kwaw@freechal.com과 다른 친구들에게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에 이용할 경우 :

아래에 계속 답글을 달아가는 식으로 쓰면 됩니다. 어느정도 모이면 답글을 모아 성명서 뒷부분에 붙여서 다시 다른 분들의 글을 이어서 받게 됩니다. 함께 쓰는 성명서는 언니네(www.unninet.co.kr)와 여성신문(www.womennews.co.kr)이 함께 했습니다. (편자주)

4조 3천억원이라...
 정혜인 (miganda)

너무 큰돈이지만 나름대로 유용하게 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학생이니까 당장 생각나는 것은 교육재정 확충입니다. 두 번째는 실업대책을 세워야겠지요. (구체적 방안은 제가 제시하기는 좀 모호합니다만) 세 번째는 의료보험, 생계보장비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 등에 더욱 그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은 이것뿐이네요 ^^;; 와우의 건승을 빕니다.

그 정도 돈이면...
 조석순애 (wom1312)

그 정도 돈이면...적어도 한동안 남북한의 결식아

동들을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계산이 안 나오는 금액이어서...
 써야 할 곳이 많겠지만 굶주림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일 듯 하여...

4만 3천명 이상의 목숨을
 강은수 (kangeunsu)

구할 수 있겠군요.1억 이하의 빚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사실 1000만원 이하의 빚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간혹 볼 수 있고, 가족이 동반자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한 빚 당 4인 이상이 되므로, 4만 3천명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겠네요. 조금 추상적인 생각이지만...받아주신다면 --

4조3천억원..
 박연주 (michinid)

전 잘 알지는 못하지만 4조3천억 원이란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제 전투기 도입에 사용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쯤은 알 거 같네요. 그 절반만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평화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국방, 나라 위상 따위 생각하지 않고 도 좀 나아진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만 오천 명에게 대학교육을...
 주혜연 (sophie99)

이제 새 학기가 다가오고, 제가 다니는 학교도 등록금이 또 올랐네요. 그에 비해 장학금은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친구들 중에 등록금을 손수 마련하는 친구들은 몇 개씩 과외를 하거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어하곤 하죠. 4조 3천억이면... 한 학기 등록금을 만약 250만원이라 한다면, 4년이면 2천만 원이 되겠군요. 무려 21만 5천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줄 수 있겠는데요. 21만 오천 명이면... 제가 다니는 학교가 정원이 만팔 천이라고 하는데, 이 규모의 학교를 무려 십 년 넘게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인 걸요? 대학교육으로 볼 때도 그렇고, 만약 다른 직업교육이나 특기교육기관을 이용한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지요. 장학금 재단을 만들어, 분쟁지역에 수많은 학생들을 파견해서 보고 배우게 할 수도 있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가는 데 돈이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이선옥 (eesunn2)

무기증강 대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은 거 같네요. 그 중에서도 열려 생각나는 건
 1) 무료양로원 시설 확대: 노인들이 여생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2) 병원마다 있는 사회복지실을 통한 의료비 지원의 확대: 그리하여 돈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

람이 줄어들도록
 3) 모성보호비용을 증액할 것: 기업에게 모성보호 비용을 부담시켜서 여성채용을 꺼리게 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4)탁아시설 확대

'공보육' 전환에는 8500억밖에 안 든다. 4조 3천억에서 3조 4500억이나 남는다.
 이선옥 (eesunn2)

거창하게 국방정책이니 국방예산이니,라고 말할 것도 없이, 평소에 살림하는 사람의 눈으로 "무기값"에 대해 생각해보는 일요일 아침입니다. 석간신문 어제 것을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요. 거기 2면에 보면, '공보육' 전환 8500억 소요. 그 2면의 기사 중 가장 큰 헤드라인으로, 중앙 상단에 실려있어서 눈에 아주 잘 띄어요. 근데, 어느 신문에서 무기값을 이렇게 큰 글씨로 잘 보이게 편집한 적이 있던가요? 아니 아예 보도된 적도 거의 없지요. 우리는 어쩌서 무기값, 전투기 값, 그런데 대해서는 알고있지 못할까요. 엄청 큰 액수들이라서 우리들의 인식밖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지만 국방비는 우리가 몰라야할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돼요. 전투기 값이 4조3000억이라..... 이 돈은 (한국여성개발원의 시안에 따르면) '공보육' 전환에 드는 8500억 원과 2005년 이후 매년 투입해야 한다는 2300억 원을 15년 동안이나 걱정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액수군요. 전투기 몇 대 값으로 '공보육' 전환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네요. 그런데도 마치 엄청난 돈을 "여성"들을 위해 쏟아 붓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원가가 있습니다. 공보육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돈이 무기값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액수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를 살 때, 가격을 따지듯이 무기값, 전투기 값, 미사일 값, 폭탄값 등등에 예민해지면 전쟁을 반대하는 우리의 주장을 구체화할 수 있고, 설득력이 강해질 것 같아요.

너무 많지요~

김창연 (kcygom)

결식아동들에게는 맛있는 점심을, 독거노인들에게는 따뜻한 러브하우스를, 여성들에게는 공짜 생리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생리통 약 개발비용으로 쓸 수 있구요. 희귀병 환자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신약개발을 위해 쓸 수 있고 농가 부채를 몽땅 탕감해 주어도 잔뜩 남겠네. 또 머있다... 치매 노인 전문 요양시설도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고 군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좀 더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아프간 난민촌에 갔다주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나한테 고님의 전투기 바퀴 타이어 쪼가리 손톱만큼 만이라도 주면 (그게 얼마일까? 꽤 되겠지?) 나랑 내 친구들이 돈걱정 없이 논논 쓸텐데. 그 돈을 WAW에 주면 정말 자~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할지도 몰겠군 아...-_-;;)

4조 3천억원을 아동인 성폭력 가해자의 교육비용으로 쓴다면..?

장임다혜 (mysva)

얼마 전 PD수첩을 봤는데, 아동인 성폭력 가해자가 대개 커서도 성폭력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아동인 성폭력 가해자를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과 상담을 받게 함으로써 이후 발생할 성폭력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부디 그렇게 되길...) 4조 3천억 원을 이 아동 성폭력 가해자 교육과 상담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면, 아동인 성폭력 가해자 1인당 교육비용 대략 1천만 원으로 추산할 때, 무려 43만 명의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인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아동인 성폭력 가해자가 이후 평균 2~4건 정도의 성폭력 사건을 저지른다고 했을 때,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 약 129만 건을 막을 수 있으며, 그러한 피해로 인해 들게 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요.

일경비용을

타리 (ghaut)

일년에 대략 10만원정도로 계산을 하여 대략 1500만(한국에서 월경하는 인구라고 상상한 숫자)명의 일년치 비용을 계산하면 1조 5천억 원정도가 됩니다. 3년간 생리대와 기타 부대비용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결식아동 30만 명에게 5년 동안 매일 세끼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습니다.

김기린 (choco2go)

결식 아동 수는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죠. 게다가 학교에서 급식을 받을 수 없는 방학이 너무 싫다고 말하는, 지금도 굶고 있을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아직도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만..) 결론적으로.. 30만 명의 결식아동*2500원 식사*3끼*365일*5년 = 약 4조 1062억 원정도입니다. 4조 3천억 원이면... 가끔 과일과 간식도 먹일 수 있겠군요.. 지금 정부 지원책도 이원화되어 있어 문제가 많다고 하네요..

3천억만 있어도..

주혜연 (sophie99)

우리 WAW의 아프간여성영양제 비용이 지금 찾아보니, 2,784,570원 들었더군요. 이를 행사에 500명 가까운 분들이 관적으로 함께했고, 작은 공연과 토크회까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조금 더 잡아 300만원이라고 쳐도, 만약 4조 3천억에서 3천억만 준다고 하면, 그런 규모의 영화제를 10만 번 할 수 있습니다. 전국 10개 도시에서 한 달에 한번 한다고 치면, 800년 동안 할 수 있는 돈이지요. 꼭 영화제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그런 작은 규모의 자발적인 문화행사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들 소수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 서로의 감수성을 키우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가 펼쳐질 거고, 거기에

서 자기 일을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금액...

백중현 (bjh532)

4조3천억 원이면 우선 우리 나라의 결식아동이나 달동네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고도 남을 돈 같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만 계속 잘 나가는 것보다는 모두가 잘 살아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연말 시즌만 되면 불우이웃을 돕자는 그런 선전문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불조심처럼 일년 365일 동안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아직은 후진국이라고 봅니다. 선진국이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제발 우리 나라의 헛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나라를 돌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높은 계단이 없는 버스 만들기

kumuna

지금 운행중인 버스는 계단이 높고 가팔라서 장애인분들이나 노인,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외국에서는 계단 자체가 움직이거나 보도의 턱과 같은 높이로 제작되어 휠체어나 유모차가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이 낮은 버스가 현재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버스는 한 대 당 2억 원이 드는데, 4조 3천억 원이 있으면 이런 버스를 21500대나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버스가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만 도입되어도 장애인분들을 비롯하여 노인분들이나 어린이 등이 훨씬 쉽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버스의 제작은 비단 이용자뿐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러한 버스를 위한 부품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전부 수입해야 하는데,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선진국이라 할 만한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많아 자동차 분야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와 산업장 폐쇄가 이뤄지고 있는 현재, 새로운 버스의 제작은 새로운 일

자리 창출효과, 자동차 산업과 부품 등 관련 업종의 경기 활성화 등의 부대효과 역시 창출할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함께 사는 사회로의 의식 전환은 이렇게 많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한끼만 굶나요?

백악관

4조3천억 원. 천문학적 숫자라 상상이 안가는 액수죠. 다른 얘기는 폐일언하고, 15만 명이냐 되는 우리들의 아이들이 굶는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어린이 1명당 한끼에 2,000원씩 지급하더군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어린이가 590만 명이려면 1년 동안 매일 한끼씩 급식할 수 있는 액수죠. 결식아동이 15만 명뿐이라니 그 아이들을 39년 동안 먹여도 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전투기 몇 대에 실러 하늘로 날려보내야 하다니요. 사고 나면 연료에 운영비에, 고장나면 다시 사야 하는 부속 값에 도대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할지 모르죠. 통일을 염원하면서 전쟁준비를 하는 차세대 전투기 구입은 당연히 반대해야겠고, 그 돈으로 평화를 준비하는 사업에 쓰면 어떨까요?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134,375,000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군비증강반. 4조3천억 원(4,300,000,000,000)이면 아직도 읽을 만한 책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지 못한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를 134,375,000권 이상 제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점자도서판, 녹음도서, 학습 보조물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기수입, 군비증강, 전쟁을 반대합니다.

여성가장들의 자립비용으로...

세계평화

[울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4조 3천억 원이라니...어떤 이유로든 간에 깨끗이 살아가고자 하는 여성가장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쓰여진다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남한인구 500만 명, 그 중 반이 여성이라고 할 때 1억씩만 주면 4만 3천명의 여성가장,

1000만원씩만 주면 43만 명의 여성가장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해야만 하거나 결혼 내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불평등을 참아야만 하는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장애인을 위한 주택 마련 이슈이

[옮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4조3천억 원의 이자만으로도 집 없는 장애인들 주택문제 해결할텐데. 장애인 67%가 월소득 50만원 이하...전북도내 실태조사. 전북지역 장애인들의 67%가 가구당 월소득 50만원 이하의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와 전북장애우복지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도내 지체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체장애인 생활실태 및 의식' 설문조사 결과 가구당 월수입이 50만원 이하라고 답한 사람이 66.9%나 됐고 20만원 이하도 35.2%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전체 재산도 1000만원 이하가 절반을 넘었고 100만원 이하도 28%를 기록했다. 반면 3000만원 이상은 20%를 간신히 넘었다. 응답자들은 가장 절박한 소망으로 내 집 마련(38.6%)을 꼽았으며 취업(30.4%)과 장애치료(25.2%), 직업훈련(3.8%), 자녀교육(2.0%)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학력은 중졸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28.8%, 초등교육 23.8%였으며 무학도 10.8%에 이르렀다. 김양옥 전북장애우복지문제연구소장은 "조사대상자의 76%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생보자대상자 선정시 일반인과 장애인을 구분해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제도권에서 끌어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김용권 기자 02-02-14 13:17

아프칸을 비롯한 전세계의 굶주리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장정화

[옮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언제나 미래시제에서 가능할 평화와 행복만을 부

르짖을게 아니라 현재형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굶주리는 어린이 한 명을 구하고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평화와 행복을 만들어나갈 인류의 재물을 만들어나가는 일이 아닌가요? 이제 더 이상 전체가 공멸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가 공존할 평화의 방식을 찾아야 하지 않나요?

10대 원조교제 크게 줄일 수 있다 30대

[옮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4조3천억 원의 심문의 일만 있어도 원조교제 거의 없앨 수 있다. 2천억 원으로 집나온 10대들에게 쉼터 같은 공간을 전국 1,000군데 세울 수 있고 (쉼터 당 2억 원 규모), 나머지 돈은 이자만으로도 오랜 기간동안 쉼터를 훌륭하게 운영할 수 있다. 10대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할 수 있고.

모두 납세 거부합니다! 착실한 시민

[옮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F15 40대 사는데 4조3천억 원이 든다지요? 그렇다면 전후기 한 대에 천억 원 5천만 원 짜리 임대주택 2천 채를 짓겠네. 한 집에 식구 4명으로만 계산해도 1만 명이 편히 지낼 수 있겠어요. 40대면 40만 명세 시민들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 전 투기는 고장나면 부품도 잘 없다는데.. 그걸 사려고 그 돈을 쓴단 말예요? 말도 안돼. 국민을 뒤편 보는 거야. 모두 납세 거부운동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잘 쓰이는지 예산 감시 운동 시작합시다. 4조 3천억 원의 0.00001%만 써도 예산 감시 아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체불임금, 취업 사기 없앨 수 있어 근로자

[옮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4억3천억 중에 아주 일부만 있어도 근로자 수십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보는 체불임금과 취업사기를 없앨 수 있을 거예요. 근로감독관 수를 수십 배 늘릴 수 있죠. 한 명당 연간 비용 4천만 원으로 계산해도..계산기로 계산이 안되네요. 4조 3천억이 안 찍혀서. 음, 다시 손으로 계산해 보면 11만 명? 이 정도면 정말 체불임금 취업사기만 아니라 모든 차별도 해결되었네요.

여성복지기금으로 환원하면 좋겠다. 김항경산

[옮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해마다 여성에 대한 복지기금으로 들어갈 많은 돈들이 희한하게 다른 쪽으로만 쓰이고 있다.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 군사비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번 부시 방한과 함께 또 다시 수조원의 돈을 들어 무기를 사려고 하고 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성평등을 위해 그 기금들을 쓰면 어떨까? 모든 자본가들이 마음들이 한없이 착해져서 그 모든 돈들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

4조3천억이라는 숫자의 거대함 유윤

[옮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일반인들로서는 실감이 나지 않는 4조3천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실례들을 통해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본 통계자료입니다.

산업자원부가 2002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한 에너지절약정책은 4조2천억을 들여 해당 기간 안에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대비 에너지소비증가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소비탄성치를 올해의 1.3에서 2002년에는 0.8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조 3천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4조 5천억 원은 개발그룹 현대가 자동차부문 전자 증권 등 주력사를 포함한 그룹 전 계열의 2000년도 흑자 목표치로 잡은 액수이다. 200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4조7천8백18억 원이었다. 건설교통부는 2003

년까지 국고 80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4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전국에 산재한 504개 달동네의 골목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10만 가구에 이르는 불량주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은 4조4천억 원이었다. 2001년 정부의 실업대책예산은 4조7천억 원이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1년 예산은 36억 달러(약 4조6천억 원)이며, 2만5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2001년 정부의 철도, 항만, 지하철, 공항시설사업, 과학기술, 환경개선, 중소·벤처지원, 정보화 관련 예산은 각각 2조4천154억 원, 9천888억 원, 8천635억 원, 3천225억 원, 4조1천억 원, 3조원, 1조8천억 원, 1조4천억 원 등이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2000년도 예산안은 4조3천억 원에 달한다. 1999년 삼성전자의 경상이익은 4조3천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2000년도 미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United Way)의 모금액수는 총 약 37억7천만 불(한화 약 4조3천억 원)로 추정된다. 공사비 4억3천만 원 짜리 콜로세움은 로마 최대의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다. 1998년도 국내문화산업에서 출판은 연간 매출규모가 4조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광도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투입될 액수는 4조7천억 원이다. 인천국제공항의 1단계 공사비용은 4조2천8백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치밀하지 못했다 경영으로 삼성자동차는 4조3천억 원의 부채를 떠 안게 되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총 사업비가 당초 3조4천165억 원에서 7조9천984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총 부채가 4조3천억 원에 이자부담만도 연평균 3천400억 원이나 떠 안게 되었다. 당정은 2004년까지 4조3천억 원을 들여 초·중·고 교사들의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9년 한해 광고시장 규모는 약 4조3천억 원이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현주

[옮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4조3천억 원이라니.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그런 액수로 무얼 할 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역대의 돈도 꿈꾸기 어렵잖아요. 조 단위는 생각도 해본 적 없는 돈이에요. 전투기로 무장을 하느니 그 돈을 북한의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네요. 그게 제일 평화를 위한 해결책 아닐까요. 그 돈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취한 사람들이 남한을 향해 총을 겨눌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북한 사람들도 생각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걸 북한 사람들도 똑같이 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취업난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마호

[옮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벤처기업 만드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10억이라고 해도 4천 3백 개의 벤처를 만들 수 있고요, 한 벤처당 30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 12만 9천명의 고용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봉 천 이백. 40만 명의 연봉 전액이네요.
성실한 근로자

[옮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생각해보니 화나네요. 이런 돈을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무기 구입하는데 쓰죠? 지금 전투기가 왜 필요한 건지요, 부시 한 마디 때문에 북한이랑 전쟁이라도 할건가요? 전투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바꾸는 거라면서요. 계속 전투기 업그레이드시켜서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었나요? 그걸 좀 따져봅시다. 그 돈 나한테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하급 공무원들 임금 인상해주는 거 어때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
차금주

[옮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부실한 공교육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 세상은 돈

이 학력을 낳는다고 하지요. 그나마도 학비를 지지 못하는 가정 많고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컴퓨터를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수두룩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중·고생 학비지원액이 40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2천억 원 정도라고 하구요.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우수학생들 5만 명에게 정부에서 PC를 보급하고 인터넷 무료사용비를 지원하는데 240억 원 정도를 들인다고 하는데요. 우수학생들에게만 PC를 배당 받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까요? 전투기 사려는 비용의 0.5%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해주면 학비와, PC, 인터넷 학습이 가능하겠네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센터 170곳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연희

[옮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집에서 재활치료가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재활을 위한 중증장애인 보호센터를 정부에서 두 곳에 세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4백90억 원의 예산을 들인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4조 3천억이면 적어도 170곳 이상 만들 수 있는 돈이군요.

청소년전용 소극장 6980개 건설할 수 있다
우윤

[옮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줄길만한 문화시설이 열악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전용소극장의 총 공사 예산을 6억1천6백만 원(서울 YWCA 마루 기준)으로 잡았을 때 건립할 수 있는 청소년전용소극장의 숫자는 6980여 개이다.

마을마다 도서관, 동네마다 체육관
작은아이

[옮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4조3천억 원이면, 얼마지 상상도 안가지만,

마을마다 예쁜 도서관을 지을 수 있고, 동네마다 근사한 체육관을 세울 수 있겠네. 그러면 아이들은 비도방, 노래방, 길거리를 떠돌지 않아도 되겠네, 어른들은 단란주점, 룸싸롱, 러브호텔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겠네.

각 직장마다 보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겠네요.
이미정

[옮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4조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각 직장, 소규모 단위까지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보육문제만 해결되어도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족의 경제생활은 훨씬 나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의 사회 구성원을 키우는 일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하죠. 당연한 책임을 방기하고 전투기 사는데 국민의 돈을 쓴단 말인가요. 정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전투기는 평화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쫄오리라

[옮김] 인터넷 여성신문 이야기마당의 성명내용 4조3천억 원. 아직 어린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만 원짜리 지폐로 묶으면 그 두께가 얼마나 되겠는지도 모르겠고 4조3천억이 정말 전투기 한대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저는 세계평화이론이라는 미명아래 북북전쟁을 일으키고 전투기를 사고 팔며 적을 끌어안아주기보다는 약력이라 칭하는 것 자체가 혐오스럽습니다. 차라리 4조3천억으로 러브하우스를 도와주세요. 온갖 어려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불쌍한 국민들에게 집 한 채를 깨끗이 장만해주세요. 아니면 강원도 속초에 있는 자매의 집 무료급식소에 0.1%만 이라고 기부해주시면 끼니를 못 먹고 사는 이들에게 좀더 좋은 반찬과 밥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4조3천억이라는 돈을 전투기한대 바꾸는 것에 사용할 바에는 세계평화단체에 기부하여 온 세계의 굶주리고 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아니, 그 누가 약의 축이라 말했건 우리의

형제자매인 북한동포들에게 쌀을 보내주시시오. 차라리 남북한을 오고 갈 수 있는 철도선을 지어 이산가족의 아픔, 분단의 아픔을 달래겠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의 외침을 못 들으십니까? 4조 3천억이 만약 평화와 안전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라면 전투기한대 마련하는 것보다 위와 같이, 또 다른 분들이 서명하실 내용같이 쓰여지는 게 훨씬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4조3천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민가영

나이 들어 갈 곳 없고 돈 없는 탈매춘 여성들을 위한 쉼터(현재 막달레나의 집에서 진행하고 있는) 설립에 5억 정도 주고 10억 정도는 기금으로 쥐여 이자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게 한다.

1%만으로도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
조순경

4조3천억 원으로 무얼 할 수 있을 지 상상이 잘 안 된다. 우리의 상상력이 그만큼 고갈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박제가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머리. 주입식 교육, 온갖 편견과 차별의 결과이기도 하다. 4조3천억 원의 10%인 4천3백억 원만 있어도, 아니, 무기 구매과정에서 커미션으로 쓰인다는 그 3~5%인 1천3백억~2천백억 정도만 있어도, 아니, 그 1%인 4백3십억만 있어도, 우리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훌륭한 교재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고,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상세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지침과 교재를 펴낼 수 있다. 4조3천억 원 이외에도, 국방부는 2002년~2006년 5년 동안 군 전력 증강 사업으로 91조원을 쓸 계획으로 있다. 91조.. 91조 원.

[성명]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것은 전쟁도 아니고, 테러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테러' 예방과 진압이라는 명목아래 국가정보원이 마련한 테러방지법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의 역사가 우리의 기억에서 채 사라지지도 않은 지금, 우리는 테러방지법안에서 폭력적인 공권력의 부활을 본다. 공기처럼 만연한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여성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 왔다. 테러방지법은 우리에게 다시 그러한 희생양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다시 그 기억조차 하기 싫은 암흑의 동굴로 돌아가기를 강요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방지'를 위한 법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검찰,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다양한 국가기구, 그리고 통합방위법 및 각종 형사법 등의 법률을 통해 테러 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기존의 법 체제가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데 대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테러방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가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물음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국회는 법안 제정 시도 이전에, 테러방지법 제정의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야 하며, 국민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졸속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를 포기하기를 요구한다. 테러방지법안에 의해 신설되는 '대 테러센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우리사회의 모든 조직은 테러 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조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조직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가능하게 된다. 그 조직의 구성원은 도청과 감청, 전자 통신상의 사생활 침해를 당하게 된다. 만약 내가 다니는 학교, 또는 내가 속한 모임에서, 나도 모르는 다른 구성원이 그의 개인적 판단과 행동으로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테러행위'를 하였다면, 내가 속한 학교나 단

체는 테러조직으로 규정되게 되며, 그 조직의 장은 테러조직의 '수괴'로 간주되고, 그에게는 최고 사형이라는 처벌까지 가능하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조직에 가입을 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조직이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테러행위'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을, 그리고 '테러'와 관련된 사실이라고 잘못 알아 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테러행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타인'이 어떠한 계획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기를 요구한다.

테러방지법은 여성, 장애인, 외국인, 성적 소수자들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해 침묵할 것을 요구한다.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저항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행동들이 테러방지법에 의해 '테러행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정당한 요구와 행동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테러'로 규정되고, 그에 따라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그러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제장치도 없다.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테러방지법이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테러'로 얽혀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일상에서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폭력을 거부하는 우리는, 테러방지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테러와 폭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과거의 그 암울한 공포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강요할 수 없으며, 우리는 결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2002년 3월 8일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Women Against War)

[성명] 이라크 전쟁 반대! 다시, 반전시위를 열며



최근 고조되는 이라크 전쟁 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분노합니다. 미국은 아프간에서 저지른 전쟁범죄를 또다시 이라크에서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될 전쟁으로 무고하게 죽어갈 수 만의 이라크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폭격으로 파괴된 수도시설 때문에 극심한 갈증에 고통받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울분으로 울부짖는 사람들, 음식과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어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떠도는 수많은 난민들, 파괴된 일상을 관리하고 정신적 충격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돌보며 엄청난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이라크의 여성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외칩니다. 전쟁 위협을 멈추라고.

전쟁은 멀고 먼 이라크 땅의 일이 아닙니다. 전쟁은 폭탄이 떨어지고 땅이 피로 물드는 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전쟁은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쟁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의 아픈 기억, 세르비아의 인종청소를 위한 집단 강간, 바로 지난 해 탈레반이 무너진 아프간 땅에서 벌어진 과슈툰족 여성에 대한 집단학살과 강간, 이는 전쟁과 군사주의에서 비롯된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해 전체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로 하는 평등권은 제약되고 복지 예산은 축소되며, 이는 여성과 소수자에게 고스란히 차별과 폭력으로 작동합니다. '이라크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체념적인 주장은 결국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침묵을 뜻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성과 소수자에게 정당한 전쟁이란 없다고 절규하는 까닭입니다.

더욱이 아프간 전쟁을 시작으로 가시화된 미국의 '더러운 전쟁'은 이라크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 및 미국과 북한 간의 대결적인 구도는 위협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가 한반도 주변 전력 증강을 결정하는 등 미국의 일련의 군사적 움직임은 우리 역시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만약 이라크 전쟁에 대해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 위협이 북한을 향하여 우리 자신의 생명의 문제가 될 때, 우리에게서 그 전쟁을 막을 어떠한 명분과 이유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세계 여성의 이름으로 미국 부시 행정부에게 이라크의 전쟁위험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세계에 전쟁을 준비하도록 강요하는 공포에 찬 위협을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부시 행정부의 전쟁 범죄 수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을 즉각 멈추고,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전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성과 소수자로서 반전의 움직임에 함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어 왔던 전쟁과 폭력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반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부하는 모든 종류의 전쟁과 폭력을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모든 여성, 장애인,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 어린이,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에 대한 믿음으로, 절망의 거리에서 희망의 길을 찾아 나서는 세계의 모든 시민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멀고 험난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그것 이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2003년 2월 15일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Women Against War)

[성명] 인권 없는 반여성적 반전운동 반대한다

우리는 작년 故 신효순, 심미선 씨 사건 이후 일어났던 촛불시위와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전시위에서 보여지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남성주의를 반대합니다. 그 공간에서는 종종 성조기를 훼손하고 'Fucking USA' 라는 노래를 불렀으며, 故윤금이씨를 비롯한 미군범죄 피해자의 참혹한 사진이 전시되었습니다.

성조기 훼손과 'Fucking USA' 라는 구호는 그 집회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이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와 미국 자체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반미'의 구호와 이어지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개인을 국가로 환원시켜버림으로써 모든 개인을 가해자이거나 피해자로 만들어버린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의 여러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지위버리며, 사회적 약자들간의 국제연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성조기를 미국배권주의의 상징으로 만들면서 태극기를 진보적 운동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은 같은 국기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또한 '미국에 반대하는 한국'이라는 동식을 만들어내며 전쟁에 반대하는 여러 목소리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며,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침묵하게 합니다. 즉, 전쟁이라는 것이 일상적, 구조적 군사주의를 통해 가능해지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 차별 및 폭력과 이어져 있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식의 '반전주장'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미', 'Fucking USA' 라는 구호만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반전운동이 급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방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故 신효순, 심미선 씨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있었던 추모, 반미 집회에서 그녀들의 주검 사진은 故윤금이 씨의 사진과 나란히 전시되어 왔습니다. 범대위 관계자들은 피해자 시신 사진 사용이 초래하는 거듭되는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충격적인 사진을 걸 수밖에 없었다.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투쟁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진들은 운동의 효과를 위해 '이용' 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닙니다. 故윤금이 씨의 주검 사진은, 사진이 찍힌 각도 자체가 이미 주검이 된 여성의 신체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사진이 찍혔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근본적인 폭력과 군사주의의 문제를 건드리려 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의 운동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충격을 유발하여 분노를 이끌어내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운동은 그 충격이 완화되는만큼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검 사진 전시는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강화합니다. 故 신효순, 심미선씨의 주검사진 옆에 故 윤금이씨

사진이 나란히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힘없는 한국이 여성 이미지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신체가 참혹하게 피해를 당한 장면이 (남성)민족의 치욕으로 치환되어 (남성)국가적 분노를 자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故 윤금이씨 살인 사건을 불평등한 국가간의 문제로만 환원하는 것은 故 윤금이씨의 죽음을 반미운동에 '이용' 하는 것이며, 그 죽음을 가능하게 한 여성에 대한 국가 내 남성의 지배와 폭력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은 미군과 한국 여성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존재하고 군사주의가 팽배한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반전운동을 위해서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 대항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의 반전은, 힘의 논리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 군비를 증강하는 것, 여성과 소수자의 주체성을 삭제해버린 채 그들을 보호막에 가두고 동시에 지배하는 군사주의와 남성지배체제에 대항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강화되는 '어머니/장녀' 구도의 여성에 대한 이분법을 거부하며, 모성만을 여성이 말할 수 있는 평화로 국한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어머니가 '군대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으로써 반전평화를 외친다는 것은 '어머니될 가능성을 가진 존재' 라는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수한 폭력의 피해자였던 지난 동안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전쟁의 부당함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왔고, 전쟁과 폭력의 오랜 피해자로 살아왔지만, 그래서 오히려 전쟁을 원하는 자들이 말하지 않고 은폐하는 전쟁의 진실을 알고있습니다.

여성은 증언합니다. 여성으로서 증언합니다. 여성이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현 시기 진행 중인 전쟁을 반대하는 실천을 벌어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근본원인인 군사주의와 남성지배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겠다고 충격적인 말과 영상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폭력을 가하는 것이며 진정 전쟁을 반대한다면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하고자 합니다.

2003년 4월 7일

고려대 법대 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관악여성모임연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성명] 미국은 한반도 전쟁 위협을 중단하라

부시 행정부는 지금 또 하나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냉전의 마지막 지대로 남은 한반도는 다시 한번 위기의 땅으로 변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두 개의 입을 가지고 있다. 한 입으로 그들은 한반도의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다른 한 입으로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군사적 해결도 고려하고 있다고 위협한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 부시가 말하는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준비를 은폐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일 뿐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 한미 군사합동훈련 이후에도 한반도에 남아있는 스텔스 폭격기는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스텔스 폭격기가 이 땅에 남아 있는 한 우리는 부시의 평화를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이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경우 북한은 휴전선에 배치된 재래식 야포로 남한을 공격할 것이다. 북한 재래식 야포의 사정 거리인 한강이 북 지역에 배치된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북쪽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행해지는 주한미군의 후방 배치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는 부시의 평화적 해결이란 말을 신뢰할 수 없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예방전쟁의 '명분'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그 거짓 명분의 단골 메뉴들을 알고 있다.

부시는 북한이 대량학살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라면 이 지구상에서 대량 학살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해 온 미국이, 핵무기를 이미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미 사용해 온 전력이 있는 미국이 전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시의 논리대로라면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연합하여 미국을 공격해야 마땅하다.

부시 행정부는 몇 차례의 외교적 제스처와 외교적 수사 이후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한 이후의 불가피한 조치"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외교적 노력의 실패라는 말은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일뿐이다.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폭력'이란 말은 강자의 말이다.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전쟁'이란 힘있는 강대국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이다. 외교적 노력이 실패해서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대화의 성패 여부를 결정 짓는 권력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자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폭력은 힘있는 자가 손쉽게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전세계 군사비의 절반을 사용하는, 가공할 온갖 첨단 무기를 보유한 미국을 상대로 이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 전력난으로 밤이면 암흑으로 변하는 북한이 왜 자살행위와 같은 공격을 하리라고 생각하는지.

북한이 미국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부시 행정부는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탈냉전시기 미국은 공산주의라는 적대 세력을 대체할 '악의 축'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북한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일 뿐이다. 아 이러니하게도 부시 행정부는 '악의 축'으로서의 북한을 필요로 한다. 부시 행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 증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중국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한반도를 위해 그를 정당화할 북한의 '핵 위기'와 '미사일 위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부시는 북한 주민들을 굶주림과 인권침해, 독재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전쟁을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시는 북한 침략의 명분으로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그는 이미 전쟁을 통해 그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기 때문이다. 부시는 북한 침략의 이유로 굶주림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이미 천문학적 액수의 전쟁 수행비용으로 사회복지비용이 삭감되어 수많은 미국의 시민들이 거리를 떠돌며 굶주리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의 침략 전쟁에서 사용될 스탬프 한 대 값만으로도 북한의 주민 전체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을 위한, 북한 주민의 해방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전쟁을 정당화 할 수 없다. 전쟁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소수자의 인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며, 전쟁과 테러의 공포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온 그가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방 전쟁'이란 없다. 해방은 야만적 폭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년 사이 이미 두 차례의 침략 전쟁을 수행한 부시에게서 우리는 어떠한 인도주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없다. 그가 말하는 인도주의는 그의 전쟁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기만의 언어일 뿐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침략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전쟁 준비를 즉각 중지 할 것을, 그리고 북쪽을 위한 사전 작업인 주한미군의 후방 재배치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장해 가면서, 그를 이유로 전력 증강과 그를 위한 첨단 무기의 구매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남북한의 군비 증강 경쟁을 가져올 것이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쓰여질 자원은 그들을 일차적 희생양으로 삼는 전쟁 준비에 쓰일 것이다.

우리는 남과 북이 함께 군축과 평화주의를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만이 부시

의 '예방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부시가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폐기하는 것이며, 남한과 북한이 군사주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주의를 선언하는 것이며, 그를 통해 한반도의 위기가 사라지고 그리하여 군비증강을 위한, 전쟁 수행을 위한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라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남과 북이 우리의 제한된 자원을 죽음의 무기로서가 아니라 생명의 자원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자원을 한줌의 군산복합체와 권력자들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소외당해온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 지대로 남은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지역으로 간주되는 한반도는, 어떠한 긴장과 갈등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평화의 땅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거대한 권력의 소유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쟁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말할 권리조차 빼앗겨 온, 여성과 소수자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세계 시민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여성들의 인권은 남성에게 의해 주어진 바 없으며, 유색인종의 자유는 백인들에 의해 주어진 바 없으며, 평화는 전쟁을 원하는 자들로부터 주어진 바 없다. 인류가 꿈꾸어온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힘에 의한 정의'를 거부하는 세계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평화의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03년 4월 21일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Women Against War)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과 '미군장갑차여중생살인사건범대위'에 보내는 공개서한

저희는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입니다. 2001년 9월 20일, 평화를 원하는 여성주의자들의 모임을 통해 발족한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Women Against War)는,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모든 여성과 장애인,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 어린이,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 및 단체들의 모임입니다.

아프간 전쟁 이후 전투기구매 반대, 테러방지법안 반대 운동들을 벌였고 2002년에는 '소수자의 시선으로 북한만나기'를 통해 북한여성인권에 관한 고민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이라크전 반대, 북한전쟁위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WAW는 전쟁이 일상적 차별과 폭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뿌리가 같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반전의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반전'의 내용과 방식에서도 그 목소리를 담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라크침공이 장기화되고 있고, 파병동의안이 가결될 가운데 계속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서한을 보내게 된 것은 한국의 반전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두 단체에게 묻고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아프간침공 이후 만들어진 '공동실천'과 작년 故신태훈,심미선씨 사건 이후 만들어진 '범대위'는 작년 추모 촛불행사에서 현재의 반전시위까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집회의 공간에서 때때로 불편함을 느끼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집회가 아닌 성찰 없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반미시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한가지는 성조기 훼손과 'Fucking USA'라는 구호이고, 다른 한가지는 故윤금이씨를 비롯한 미군범죄 피해자의 사진사용입니다.

'공동실' 범대위'에서 주도하는 집회에서 종종 일어난 성조기 훼손과 매번 시위마다 말해지고 불러졌던 'Fucking USA'라는 구호는 그 집회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이 부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와 미국 자체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반미'의 구호와 이어지는데, 이것의 문제점은 개인을 국가로 환원시켜버림으로써 모든 개인을 가해자이거나 피해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내의 여러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지위버리며, 사회적 약자들 간의 국제연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애초에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성조기를 미국패권주의의 상징으로 만들면서 태극기를 진보적 운동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은 같은 국기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입니다. 또한 '미국에 반대하는 한국'이라는 등식을 만들으로써 전쟁에 반대하는 여러 목소리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며,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침묵하게 합니다. 즉, 전쟁이라는 것이 일상적, 구조적 군사주의를 통해 가능해지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 차별 및 폭력과 이어져 있음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식의 '반전주장'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다시 말해서 '반미', 'Fucking USA'라는 구호만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반전운동이 급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어온 피해자의 사진 전시와 관련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故 신태훈,심미선씨 사건 이후 벌어진 추모, 반미 집회에서 그녀들의 주검이 실린 사진이 故윤금이씨의 사진과 나란히 계속해서 전시되어왔습니다. 범대위 관계자들은 문제제기에 대해 "시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충격적인 사진을 걸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지만 그 사진들은 운동의 효과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근본적인 폭력과 군사주의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그러한 방식의 운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큼니다. 충격적인 영상을 통해 분노를 이

일본 고이즈미 총리에게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가 보내는 공개서한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Women Against War)입니다. 2001년 9월 20일 평화를 원하는 여성주의자들의 모임을 통해 발족한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Women Against War)는,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모든 여성과 장애인,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 어린이,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 및 단체들의 모임입니다.

아프간 전쟁 이후 전투기구매 반대, 테러방지법안 반대 운동들을 벌였고 2002년에는 '소수자의 시선으로 북한만나기'를 통해 북한여성인권에 관한 고민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이라크전 반대, 북한전쟁위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WAW는 전쟁이 일상적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두 가지의 뿌리가 같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반전의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반전'의 내용과 방식도 그 목소리를 담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WAW는 얼마 전 일본이 북한 공격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면서 북한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보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에게 공개적으로 몇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31일 일본의 방위청 장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는 "일본정부는 지난 1985년 의회 답변을 통해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헌법의 취지가 아니다"면서 "우리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그러한 대응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만큼 이는 분명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끌어내는 운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전시의 문제점은 영상의 참혹함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강화한다는데 있습니다. 故 신호순,심미선씨의 주검사진 옆에 故 윤금이씨 사진이 나란히 '선택'된 것이 우연입니까? 그것은 여성이, 힘없는 한국이 가장 참혹하게 피해를 당한 장면이며 (남성)민족의 치욕으로 치환되기에 가장 '적당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여전히 주체가 아니라 민족의 '어여쁜 딸', '꽃다운 누이'로만 한정되었고, 이렇게 남성주체가 여성을 '보호'한다는 논리는 군사주의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동실천'과 '범대위'측에서 주장하는 '반전'과 지향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전쟁과 폭력을 없애는 것은 약소국이 강대국에 저항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국가 간의 힘의 균형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무기구입과 전쟁준비를 계속하게 할 뿐입니다.

'공동실천'과 '범대위'가 주최하는 대규모 반전시위에 참여해온 사람들이 느꼈던 위의 내용과 반전평화에 대한 두 단체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2003년 4월 15일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Women Against War)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일본이 어느 순간이라도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동시에 선제공격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의 실제 미사일 발사여부를 떠나 "발사하려고" 했으므로 공격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내세운 명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라크가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계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처럼, 일본 역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위협이 있으므로 북한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의 '헌법'이라는 권력을 빌어 정당화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엄연히 북한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이처럼 최근 일본이 보여준 태도들은 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국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위대법을 개정하고, 미사일방어 구축을 가속화하는 등 언제라도 북한을 공격하여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 미국처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북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언제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국가로 상징함으로써 일본이 전쟁을 먼저 일으킬 수도 있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8일 일본은 한반도 정찰을 주임무로 하는 정보수집위성 2기를 우주로 쏘아올렸습니다. 이 위성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 핵관련 시설 등 군사동향과 일본 주변해역의 불법어로선박 움직임 등에 관한 정보를 24시간 체제로 독자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위성 발사를 통한 정보수집행위는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화나 타협을 갖지 않은 일본의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이고 위협적인 태도에 대해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는 일본이 북한과 타협이나 대화를 하고자하는 의지보다 북한을 공격하여 전쟁을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본이 실제로 북한과의 전쟁을 의도하고 있다면, 그러한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 일본의 전쟁은 북한과 일본의 국민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한의 평화까지도 위협하는 것이므로, 현재 일본이 보이고 있는 행태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일본의 평화를 위한다면 전쟁을 조장하는 행위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고, 세계로부터 고립시켜 가면서 전쟁을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는 행위들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명분도 전쟁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전쟁을 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진정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북한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로부터 북한을 고립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쟁을 조장하고 북한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미국과 손을 잡고 아시아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팽창시키려는 음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3년 4월 25일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Women Against War)



절망의
거리에서
희망의길을
찾아서

이라크 전쟁의 시작과 끝, 미국은 어디에 있나 -부시 대통령에게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가 보내는 공개서한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Women Against War)입니다. 2001년 9월 20일 평화를 원하는 여성주의자들의 모임을 통해 발족한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Women Against War)는,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모든 여성과 장애인,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 어린이,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 및 단체들의 모임입니다.

아프간 전쟁 이후 전투기구매 반대, 테러방지법안 반대 운동들을 벌였고 2002년에는 '소수자의 시선으로 북한만나기'를 통해 북한여성인권에 관한 고민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이라크전 반대, 북한전쟁위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WAW는 전쟁이 일상적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두 가지의 뿌리가 같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반전의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반전'의 내용과 방식도 그 목소리를 담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 전의 처음 시작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당신이 이라크 전을 정당화시켰던 가치를 '대테러전'에서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으로 바꾼 것은 진정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우리는 당신이 처음 '대테러전'을 천명하며 개전할 때부터 발견을 호언장담했던 가공할만한 생화학무기가 미군이 이라크 전역을 완벽하게 점령하고 있는 오늘까지

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생화학무기는 또 다른 '불량국가' 시리아에 숨겨져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라크에 대한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 '독재와 억압에 시달리는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라며 그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두 문장을 건너면 '예측'이 '명백한 사실'이 되어 독자적 군사행동을 할 수 있고, 그 예측이 틀리더라도 기어코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당화시키고야 마는 당신의 '그 예측'이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시리아에 있는 생화학무기를 찾기 위해 시리아로 진군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테러와의 전쟁'에서 '독재와 억압에 시달리는 시리아 국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까?

둘째, 당신은 폭력과 공포에 휩싸인 지금의 이라크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번 전쟁사상자의 80%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일 것이라는 공식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국민을 위한 전쟁'을 감행하였고, 실제 대부분의 사상자가 민간인 거주지역과 병원 등에서 발생하였다는 점도 무시하며 아직도 '이라크 국민을 위한 전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라크 전역에 퍼져있는 무정부 상태의 야만과 폭력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이 이라크 땅에 일으킨 4번의 전쟁(이란-이라크전, 1991년 걸프전, 12년 간의 경제제재 이후)으로 아직 공포에서 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라크 국민들은 지금, 당신에 의해 묵인되고 있는 자국의 무정부상태로 인해 또 다른 야만과 폭력을 겪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당신이 일으킨 이번 전쟁은 지금의 이라크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까? 바그다드 시내에 있는 후세인의 동상만 제거된다면, 지금의 살인, 강도, 방화, 약탈은 모두 용납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가치입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가 보내는 공개서한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Women Against War)입니다. 2001년 9월 20일 평화를 원하는 여성주의자들의 모임을 통해 발족한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Women Against War)는,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모든 여성과 장애인,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 어린이,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 및 단체들의 모임입니다.

아프간 전쟁 이후 전투기구매 반대, 테러방지법안 반대 운동들을 벌였고 2002년에는 '소수자의 시선으로 북한만나기'를 통해 북한여성인권에 관한 고민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이라크전 반대, 북한전쟁위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WAW는 전쟁이 일상적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두 가지의 뿌리가 같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반전의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반전'의 내용과 방식도 그 목소리를 담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WAW는 현재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에 우려하여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가 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몇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 차례가 한반도일 것이라는 것이라고 얘기되어 왔습니다.

셋째, 당신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또 다른 국가인 북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이것을 '북핵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핵 과학자 회보> 최근 호는 미국이 '냉전 시기에 23개국과 미국 국내의 다섯 곳에 1만 2천 개의 핵탄두와 부품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최근 폭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야 말로 명실상부한 최대의 핵무기 확산국가 아닙니까? 또한 미국은 이스라엘의 세계에서 여섯 번 째로 큰 규모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용인했을 뿐 아니라,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펼치던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에도 협력했습니다.

어떤 국가의 핵무기는 인정하고, 또 다른 어떤 국가의 핵무기는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동맹국의 핵보유는 되지만 비동맹국의 핵보유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 판단 기준에 모든 국가들이 동조하고 가담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서 이라크, 시리아, 북한이 아니라 자의적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고, 단독공격, 선제공격도 불사하지 않으며 '예측'을 토대로 즉시 '실행'에 옮기는 당신의 의사가 더 위협적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는 전쟁을 수단으로 평화가 지켜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폭력을 일삼고 정당화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을 원치 않기에, 그리고 그 폭력이 양산해내는 차별을 반대하기에 말합니다. 따라서 부시대통령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 더 이상의 '예측'이나 '가정'이 아닌 진정한 '사실'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25일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Women Against War)

2001년 1월 연두교서에서 부시는 북한과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중심축으로 두고 인권의 문제와 함께 북한을 공격할 명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세계의 여론으로부터 북한을 고립시키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것입니다.

최근 북한과의 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으나,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부시가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한 작업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 하나의 정치적 연출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역시 북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2년 겨울, 북한의 식량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지원을 했던 일본이 북핵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중유와 식량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사시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려 하였고,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두 개의 위성을 쏘아 북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시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한반도에서의 전쟁 준비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 목소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공격력을 갖는 것, 즉 '이라크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핵무기라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군축을 하고 평화주의를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가 대두되고 부시의 이라크 침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준 모습은 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얼마 전 중단하였던 공군 훈련을 재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부시의 이라크 공격당시 큰 역할을 했던 공군의 공격력에

대비한 훈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해안에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일본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이 일상적인 훈련의 하나라고 주장하더라도 충분히 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미 부시나 일본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위협국가로 상정하고 있고 그에 알맞은 자신들의 법적이며 도덕적 명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시나 일본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 행동들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부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핵심적인 문제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테러국가, 악의 축이라고 전세계 여론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은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 선언이 없는 이상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타협이 얼마나 같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라크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너무나 위험천만합니다. 현재 보여주는 북한의 태도는 절대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전쟁의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군축과 평화주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군축과 평화주의를 선언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이 물리적인 힘으로 부시와 일본의 전쟁음모를 중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을 도울 수 있는 힘은 세계 여론과 평화주의자들의 주장과 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위치는 쉽게 옹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 4월 16일 북한의 인권문제가 UN인권위에 상정되면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의 인권문제는 미국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거론되면서 그 심각성이 합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게는 너무나 불리하고 부시에게는 너무나 유리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를 '북한 인민의 해방군'을 자처할 명분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북한은 물리적 힘, 군사력 확대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기 보다, 부시와 일본의 공격 명분을 없애는 데 우선해야 합니다. 부시가 만들어내는 전쟁의 명분과 논리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보이기에, 그 명분을 깰 수 있는 논리 역시 명확합니다. 북한 스스로가 군축을 시작하고, 평화주의를 선언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북한이 군축을 시작하고 평화주의를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명분을 깰 수 있으며, 세계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처럼 폭력과 물리적 힘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쟁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여러 원조들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외적 위기뿐만 아니라 대내적 위기까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 의해 한번 경험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의 북한의 상황은 전쟁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압력으로 인해서도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당장 체제 유지 여부의 문제를 떠나, 북한의 주민이 직접적으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남북 관계의 측면에서도, 전쟁의 공포를 경험한 남한의 국민들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북한의 계속적인 폭력과 물리적 힘의 확대 가능성으로 인해 남한의 여론 역시 긍정적일 수 없으며 그동안 노력해온 남북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북한과 한반도가 살 길은 함께 군축과 평화주의를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서 있는 북한이 먼저 군축과 평화주의를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남한과 대화하고 세계와 대화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세계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남한과 교류하고, 세계와 교류하며 스스로의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북한이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진정 북한이

북한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다면, 평화로운 생존을 원하는 북한 주민의 목소리와 전세계 평화주의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2003년 4월 25일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WAW(Women Against War)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가 보내는 공개서한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Women Against War)입니다. 2001년 9월 20일 평화를 원하는 여성주의자들의 모임을 통해 발족한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Women Against War)는,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모든 여성과 장애인,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 어린이,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 및 단체들의 모임입니다.

아프간 전쟁 이후 전투기구매 반대, 테러방지법안 반대 운동들을 벌였고 2002년에는 '소수자의 시선으로 북한만나기'를 통해 북한여성인권에 관한 고민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이라크전 반대, 북한전쟁위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WAW는 전쟁이 일상적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두 가지의 뿌리가 같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반전의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반전'의 내용과 방식도 그 목소리를 담고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 이후 미국은 세계 패권 장악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방전쟁의 일차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반도는 전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북미관계로 점철되는 동북아시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여, 노무현 대통령께 현재의 정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북핵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대처방안에 관한 것 입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를 들면서 북한 정권의 도발적인 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들의 대처방법이란 북한의 김정일 정권 붕괴이며, 이를 최종적인 목표로 전쟁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한 내 미군사기지 재배치, 비무장 지대의 미군철수 등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미국의 예방전쟁 준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외교적 판단은 매우 미약하고 안이하게 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기반하였던 이라크 침공을 평화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킨 미국의 침략전쟁에 과병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국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말했듯이, 실용적 노선에 입각한 과병결정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었습니까?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소위 '북핵문제', '북핵위기'라고 말해지는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개발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언론은 쉽게 위기, 문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령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왜 북한만을 문제삼는 것일까요? 전세계적으로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중국, 미국)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군사동맹국, 수익성 좋은 시장 등등의 이름으로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를 공급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뒤늦게 이를 문제삼고 있는 의도에 대해서는 파악하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위협적이고 위기를 가져다주고 있습니까? 가난에 허덕이고,

전력난으로 밤이면 암흑으로 변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자체입니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위협적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부시 정부입니까?

둘째, 우리 정부의 외교적 협상 카드와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파병결정에 따른 '국익론'은 이미 허위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정은 다른 나라의 피를 대가로 우리의 이득을 얻겠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국익은 미국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했듯이, 철저히 실용적 노선에 따르는 외교를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별이는 한미외교를 보다 철저히 우리 국민의 이익에 입각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의 이익은 국가 지도층의 입장이 아니라, 주한미군범죄와 같이 한미관계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받는 시민, 여성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초기에 기대했던 호혜평등하고 한반도 평화정책에 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한미관계 외교정책에서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말씀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현재 결정되는 내용들은 전통적인 지배-종속의 한미관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미군장갑차사건, 6.15남북공동성명으로 인한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한미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내의 평화분위기 조성이 실질적으로 가능했을 텐데,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협상 카드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한미동맹'의 실체는 패권 국가의 이익에 의한 결정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한미관계 개선' 등의 수사로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은 의혹만 증폭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이 부재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 아닌가요?

셋째, 우리는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군축, 평화주의를 주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이 행동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한반도는 가장 유력한 제2의 전쟁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최대의 표적이자 피해자는 미국이 아닌, 한반도에 살고 있는 북한과 남한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과 이라크는 다르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전쟁 상황에까지 가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의 행동은 이러한 궁극적인 해결방안과 정반대로 여겨집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국방력 강화, 자주국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이를 이유로 전력 증강을, 이를 위한 첨단무기의 구매를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전초기지로 삼아 중국 견제를 위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전이 끝남과 동시에 겹으로는 북핵 문제를 노무현 정권과 협의에 의해 해결하는 척 하면서, 일본과 남한의 군사동맹으로 결부시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에 대항하기 위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위해 동북아시아 질서에서 군사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유지하는 매커니즘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협력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안보에 최선일까요?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군축과 평화주의를 외교적 노선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시나리오와 다르게, 남북이 군사주의에 의지하지 않고 평화주의를 선언하는 것, 그래서 한반도 위기가 사라지고, 군비증강을 위한 전쟁수행의 명분을 없애는 것입니다. 군비를 증강할수록 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가 설 땅은 더욱 위협받습니다. 국력의 강화가 무기의 증대로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수단으로 평화가 지켜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폭력을 일삼고 정당화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을

원치 않기에, 그리고 그 폭력이 양산해내는 차별을 반대하기에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몇 가지 의견에 대해 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25일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Women Against War)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가 만들어진 후 계속 쌓여왔던 자료와 회원들이 써온 글을 모아서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있는 글들만 모아서 이 글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얼른 건네주자고 시작한 작업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있는 글들은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의 이야기들을 담고있지만 이 글 속에 담겨있는 전쟁의 피해자, 여성과 소수자들의 경험들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은 아주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상의)전쟁을 겪게 하고, 집단적인 상처를 대물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 담긴 목소리가 전쟁의 진실을 알리는데 일조하고, 여전히 묻혀져 있는 많은 경험들을 드러내고, 알리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WAW 편집팀

메이, 시아, 윤정, 조순경, 진영, 진경, 타리, 해연, 현숙

아주 오래 전부터 생각 해오던 책이 한 해를 훨씬 더 넘겨 드디어 나오게 되다니, 너무나 감격스럽네요. 항상 만나도 그리운 WAW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그만 결실들이 쌓여서 앞으로 큰 물결이 되길!

- 해연

떨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씩 준비한 글들이 모여 이렇게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이라는 자료집으로 엮였네요. 전쟁터에서 적어 내려간 글들을 하나씩 읽어가며,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차라리 눈을 감아버릴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이 부끄럽네요. 그동안 원고에, 자료정리에, 편집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전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작업을 할 수 있었던 데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 옆에서 많은걸 느끼고, 배우고, 참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조금씩 덜 부끄럽게 살도록 노력할게요.

- 시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한편으로는 그 오랜 시간이 내게 '관심'을 놓지 않게 하는 힘이 되어주기도 했다.

원고 수록을 허락해주신 분들, 번역해주신 분들, 같이 이 작업을 한 WAW 편집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료집을 예쁘게 탄생시켜주신 조선미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음에는 WAW 사람들이 풀어놓은 이야기를 더 많이 담게 되길 기대한다.

편집팀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있는 결과물이길 바라며...

- 진영

다들 너무 애썼어요. 미안하고, 감사해요.

- 메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교열을 하면서 예전에 썼던 글을 다시 봐야 했다. 무척이나 부끄러웠다. 그 글을 쓴지도 2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알팍함이 여전히 부끄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WAW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 진경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준비하기란 나에게 여전히 많은 부담과 아픔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내 일상을 설명하고 꾸려나가는데 있어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참으로 작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만나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다.

편집을 하며, 교열을 하며, WAW활동을 하면서 접했던 글들을 몇번씩이나 다시 읽는 것은 그것만으로 다시 많은 고민을 환기시켰다.

오래 오래, 자주,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글이 있어서 읽히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 타리

Thanks to

다섯 달 남짓 각자 일로 바쁜 와중에서도 편집을 위해 일해주셨던 WAW 편집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WAW가 생긴 이래로 번역을 통해 정보를 얻고 국제연대를 가능하게 해주신 WAW의 번역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발간을 위해서 그간 번역된 글들을 검토, 수정하는 수고를 해주신 해연과 시아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교열을 위해 애쓴 메이, 진영, 화, 진경, 타리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여성과 성소수자의 입장에서 글을 써주신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와 필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WAW가 고민하고 활동하는데 많은 힘을 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이 멋지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편집디자인 조선미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WAW를 편집노동으로 후원해주시지 않았다면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을 발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WAW 후원계좌 : 조흥 595-04-593055 (예금주 정경아 : WAW)
국민 030-01-0428-928 (예금주 정경아 : WAW)
농협 059-02-257668 (예금주 정경아 : WAW)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들

인 쇄 : 2003년 10월 8일

발 행 : 2003년 10월 8일

펴낸이 :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 편집팀

인 쇄 : 도서출판다움 (055)261-6291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WAW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0-30호 301호

http : //www.kwaw.org

e-mail : kwaw@freechal.com